

제목: "하나님의 사람"

말씀: 창세기 39장 12-23절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세상의 사람들과 어떻게 다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요셉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그 어려움으로 돌려 쌓여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어떠한 가운데 살았습니까?

1. _____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2. _____ 길을 내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3. 오히려 세상에서도 _____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우리교회가 섬기는 선교지	
백남일/김유정 선교사	북아프리카, 프랑스 이슬람권 사역 (난민)
Silk Wave 선교회	터어키 교회개척 및 목회자 사역
깊은 뿌리 나무 (Deep Roots Church)	한인 2세를 중심으로 개척 된 다민족 교회 (뉴저지)
김인선/신유선 선교사	현지 교회, 사랑의 집짓기, 학교, 밥퍼 사역
임철현/임윤실 선교사	한국(제주) 탈북자, 고려인 자녀 사역
지난 주 헌금	
십일조	
주일	
감사	
합계	

오레곤 새로운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교회는 인생의 슬픔 끝 그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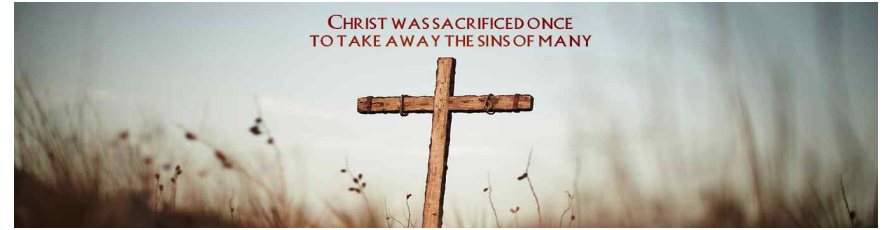
행복이 시작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인생과 영원한 삶을 위하여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오레곤 새로운 교회로 초청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1-2절)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Hebrews 12: 1-2)



주일예배 Sunday Worship Service

오후 12시 30분

인도: 김성민 목사

12: 30 PM

Presider: Rev. Jason Kim

*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Call to Worship Presider

* 찬양 다같이
Praise All Together

예배를 위한 합심기도 다같이
Prayer All Together

성경말씀 창세기 39장 13-23절 설교자
Scripture Reading Genesis 39: 13-23: 2 구약 60 페이지 Presider

말씀 "하나님의 사람" 김성민 목사
Message Rev. Kim

헌금/기도 다같이
Offering and Prayer All Together

광고/환영 인도자
Announcement Presider

* 찬양/헌신기도 보라 너는 두려워 말고 다같이
Praise and Prayer All Together

* 축도 김성민 목사
Benediction Rev. Kim

오레곤 새로운교회 New Church of Oregon

(예배 장소) 3228 SW Sunset Blvd Portland OR 97239 (503)332-1941

(St. Andrew's Presbyterian Church)

www.newchurchoregon.com newchurchoregon@gmail.com

담임: 김성민 목사 (Rev. Jason Kim, Senior Pastor)

담임목사 컬럼 (앞으로 10년을 내다보면)

며칠 전 어느 선교사님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한국의 대학생들의 예수님을 믿는 숫자가 젊은이들의 3%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들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펜데믹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오고 있었다는 이야기에 더욱 놀라게 되었다. 내가 알고 있는 한국 교회는 늘 차고 넘치는 곳이었었는데 어느덧 시대가 바뀌고 변해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또한 믿음으로 돌아오는 젊은이들이 그렇게도 없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앞으로 20년 후에 교회는 어떻게 될까? 지금 있는 교인들 모두가 20년 늙는다고 생각할 때에 교회는 60대 이상이 되고 그 보다 젊은이들은 아예 없는 곳이 되고 마는 것이다. 불을 보듯 흰히 보이는 광경이다.

어쩌다가 우리나라의 교회가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더욱 큰 문제는 교회들이 그러한 문제를 알고는 있지만 아무런 변화와 도전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그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많은 기도와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민 교회는 어떠한가? 그보다 더 빠를 것이다. 교회마다 교육부가 없어져 간지는 알게 모르게 10년을 넘어서다. 그리고 청년들이 없는 교회는 더 많고 2-3세대를 잃은 지는 벌써 오래다. 앞으로 한인교회의 10년 후는 어떻게 될까?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교회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회개하며 그들을 복음으로 불러 모으기 위하여 힘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오히려 지금의 성도들은 자신의 믿음생활조차도 힘겨워한다. 다음 세대에 믿음으로 말하기에는 너무나 연약하고 도전이 없는 세대가 되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민에 빠진다.

우리에게는 지난 40년의 시간이 있었고, 나에게는 사역의 시간이었다. 그런데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밖에 없다. 그렇게 많은 기회들이 있었지만 당회실에서 끝도 없고, 성경 말씀에도 없는 이야기들로 시간과 감정과 힘을 다 빼고 말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신을 차린 많은 동료 목회자들이 일찍 한인 목회에서 은퇴를 선언하고 선교지로 기수를 돌려 더 열심히 의미를 찾은 사역을 하는 것을 본다.

어떻게 해야 하나? 그렇다고 이 사역을 떠나 버릴 수도 없지 않은가? 성도들이 있고 교회가 있고 사역이 있으니 떠나고 버리면 누가 나머지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며 맡겨진 사역을 열심히 하려는 마음이다. 하지만 같이 있는 성도들이 같은 마음이 아니면 어떻게 달려갈 수 있겠는가? 문제를 같이 보고 같은 마음으로 안타까워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앞으로 10년을 늙어가는 교회로 충분히 이해하며 그러려니 하며 갈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일어서라고 하셨고 깨달으라고 하셨으며 감당하고 헌신하라고 하셨다. 그런데 일주일에 주일예배 하나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다음세대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해하실까? 우리가 한 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믿음의 재정비를 분명하게 하고 이 가을을 맞이하여야 하겠다.

교회소식

1. 환영합니다

오늘 오레곤 새로운교회 주일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예배 후 친교의 시간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2. 기도의 삶 (이번 주 기도제목)

- 1) 성도들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도록
- 2) 더욱 서로 사랑하여 한마음 되는 교회 되도록
- 3) 새로운 등록한 성도들이 믿음생활과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 4) 교육부 사역이 시작되도록
- 5) 건강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하여 / 여행 중에 성도들을 위하여
- 6) 선교지를 도우며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 7) 모두 Covid-19을 통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도록
- 8) 교회 비전에 맞는 찬양 사역자를 위하여
- 9) 우리교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 교회가 세워지도록

Deep Roots Church: 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백남일 선교사: 프랑스의 복음화를 위하여 (북아프리카 사람들) 개척교회에 새로이 세례 받은 성도들을 위하여

Silk Wave 선교회: 터어키 개신교 목회자들을 위하여

김인선 선교사: 니카라과의 사역을 위하여 (교회 개척과 학교)

임철현, 임윤실 선교사: 탈북자 자녀들을 위한 회복의 사역을 위하여

3. 새벽 기도회

매주 토요일 새벽 6시에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가능한 분들은 참석하셔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 생명의 삶

생명의 삶 11호가 준비 되었습니다. 한권 씩 가지고 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5. 종교 개혁주일

돌아오는 30일(주)은 종교개혁 주일로 예배 합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6. 교회 웹 사이트 주소와 이 메일 주소

웹 페이지 주소: www.newchurchoregon.com

이 메일 주소: newchurchoregon@gmail.com